

## 로스쿨 유치 경쟁 '총력전'

### 특별자치도 · 총동창회 등 로스쿨 추진위원회 구성

#### 특성화 분야 '국제법무'로 승부

로스쿨 설치 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제주대가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대는 로스쿨을 유치해 도내 · 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국제 법률, 국제거래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가심사기준의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등 8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로스쿨 유치 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로스쿨 설립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대성 제주도의 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로스쿨 유치 제주도 지원본부와 로스쿨 설립 법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충석 총장,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제주대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활동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는 2009년 로스쿨 개원까지 도민공감대형성을 위한 서명 운동과 로스쿨 홍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호연(생명과학) 기획처장은 "로스쿨 유치에 대학 경쟁력의 사활이 걸린 만큼 제주대가 인가심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전용 건물인 법정대 2호관도 지난 5월 이미 착공했다. 외국어교육관 남쪽에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약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어학실습실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 비중은 교과과정과 교원이다. 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과정에서 제주대는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택했다. 국제법무는 국제거래, 금융, 투자, 외국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지난달 9일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채용공고를 냈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점수를 받아 현재 16명에서 4명의 교원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우수 교수를 채용해 30명 이상의 교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대학장 권영호(법학) 교수는 "로스쿨 유치는 제주대 구성원

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제주대 학생들의 경쟁력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전국대회 설명회가 오는 10월 오후 6시 30분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다. (주)리스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 교내 장학금 예산 1% 하향 조정

### 성적우수 · 업무보조 장학생 인원 대폭 감소

2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을 위한 예산이 0.5% 하향 조정됐다. 이에 2007학년도 장학금 예산이 총 11.5%에서 10.5%로 감소했다.

이는 기성회 예산 대비 장학재원을 1% 하향 조정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약 2억5000여만원이 감소해 2학기부터 성적우수와 업무보조 장학생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조정으로 지난해 12월 선발된 200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추가 보조금 1억 3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장학금으

로 지급했으나 2학기부터는 교내 장학생 선발 인원 자체가 줄고 다음해까지 계속 하향될 경우 전체 장학 재원지침을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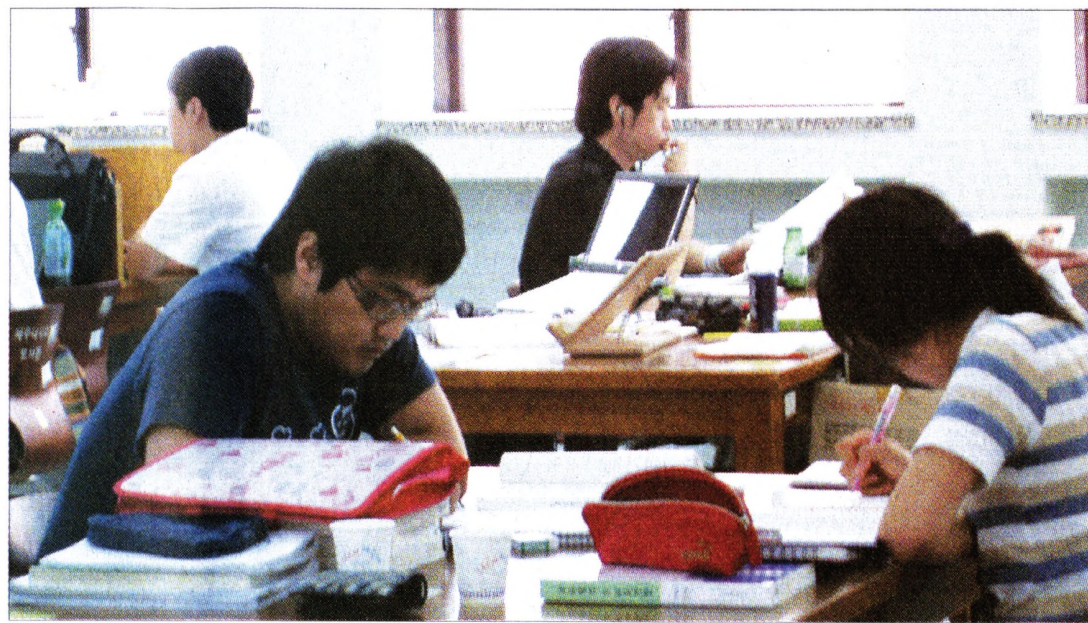
한 관계자는 "우리대학이 전국 대학평가 중 학생장학금 비율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마저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혜(지리교육 2) 학생은 "학

생회에서도 등록금 협상 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 장학금과 같은 학생복지 측면 예산이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따져 묻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철(재정과) 과장은 "이번에 장학재원과 소모성경비 부문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기존의 장학금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후생경비, 교육여건 개선, 취업유향 등 다른 부문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선희 기자 ssun@cheju.ac.kr



#### '지식'을 낚다

중앙도서관이 새학기를 맞아 활기를 찾았다. 지난 3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jieun@cheju.ac.kr

#### 정시 내신반영 상향

학생부 비율 30.2%

2008학년도 정시모집 '나군'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상향조정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내신과 수능시험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 '나군'은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11%에서 올리는 30.2%로 조정됐다.

또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도 지난해 4.5%(기본점수 372, 실질반영점수 20점)에서 30.2%(기본점수 291, 실질반영점수 209점)로 상향 조정됐다.

## 국내 최초 오픈 소스 개발 강의

다음, 오픈소스 개발자 육성 및 이해도 넓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컴퓨터 공학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관련 '오픈소스개발 방법론' 강의를 진행한다.

오픈소스는 소수 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난 사회적 움직임이다. 소프트웨어의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를 공개해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오픈 소스 사용자는 많지만 개발자는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오픈 소스의 기본기

를 교육시키고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이번 강의를 개설했다.

설치되는 '오픈소스개발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직접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덕목도 함께 배양할 방침이다.

강의는 유명공개 소프트웨어인 파이썬의 한국어 버전을 개발한 다음의 윤석찬 DAN Lab 팀장이 주임교수를 맡고 아파치 파이썬(Pytho), 오픈오피스 등 해외 유명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활약 중인 현지 개발자들이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개요오픈소스 관련 강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UC버클리, 오레곤주립대학, 포틀랜드주립대 등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대가 처음으로 개설됐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제주대와 산학협력 협약으로 'Daum Track'을 신설해 인터넷산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있다.

강은정 기자 kangej@cheju.ac.kr

## 김부찬 · 임상빈 교수 미국인명연구소 자문위원 임명



김부찬

임상빈

김부찬(법학) 교수와 임상빈(식품생명공학)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기관의 하나인 미국인명연

구소(ABI)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김 교수와 임 교수는 미국인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인명사전에 등재될 각 분야의 인재를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김부찬 교수는 "국제적인 연구소로부터 평가를 받은 보람을 느낀다"며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미국인명연구소는 1967년부터 분야별, 연도별로 인명사전을 발간해 왔으며, 발간된 인명사전은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유명 대학과 국회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한편 두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의 인명사전에 등재된 바 있으며 2008년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 사 령

박종건(국어국문 1)

기자로 임명함  
이상 9월 1일자

CNN 지국장 손지에 씨

그녀의 20대를 youngsamung.com에서 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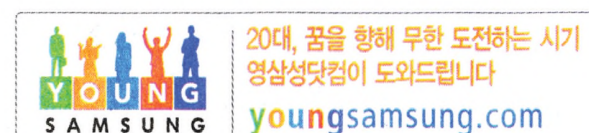


## 그녀만의 20대가 그녀를 CNN 지국장으로 만들었다

Youngsamung.com은 늘 당신의 열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죠

스스로의 열정을 조율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youngsamung.com으로 오세요.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워져야 하니까요



- ▶ 20대, 그 치열한 삶을 먼저 산 선배들의 진솔한 사연이 있습니다. '명사의 20대'를 통해 그들의 열정을 느껴보세요.
- ▶ 대학에서는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폭넓고 끈끈한 휴먼 네트워크의 진수. 열정운영진, 캠퍼스통신원에 도전하세요.
- ▶ 졸업 후 나눈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의 적성과 맞는 곳은 어디일까? 삼성그룹체험을 통해 직접 보고 느껴보세요.
- ▶ 친구들과 나누는 진로, 여행, 연애, 고민 이야기, 알토란 같은 지식, 신나는 이벤트로 가득한 곳. 영삼성닷컴과 오늘 바로 1촌 맺는다!!

당신 열정의 지지자





# 백두관 떠나는 학생들... 식당은 '적자'

## 식대 인상 보다 식단 변화 등 질적 개선 필요

### 학생들 방학 중 공사도 불만

백두관 학생식당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식대 인상 및 방학 동안 실시된 내부 공사와 관련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식당은 지난 1일부터 2년 만에 양식과 라면을 제외한 식대를 200원 인상해 정식, 중식이 1500원에서 1700원, 특식이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다. 자판기 커피 값도 50원 인상된 200원으로 결정됐다.

소비조합은 2007년 5월말 사업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식당 적자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학생회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식대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제청의 부가가치세 시령령이 개정되면서 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식

재료비의 대폭 인상, 경기침체, 정·후문 상권 형성 등에 따른 식당 이용자수의 감소로 식대인상과 업무보조학생 고용을 줄이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방학 동안 식당 내부의 노후화된 가스배관을 점검하고 주방 퇴식대 컨베이어시스템 보안공사, 조리실 에어컨 공사 등으로 1개월 동안 학생식당 영업이 중단돼 학생들의 불만이 컸다.

이용 중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학 때마다 실시되는 내부 수리 기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수미(행정 2) 학생은 "학생식당이 근본적인 적자를 없애기 위한 식대 인상에 앞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메뉴나 질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학생들의 발길을 돌려야 한다"며 "방학



백두관 학생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줄고 있어 매년 적자를 면지 못하고 있다.

1개월가량 식당 내부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식당 측에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단순히 통보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학복지과 관계자는 "우리 또한 식대 인상 후 메뉴를 다양하게 바꾸고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식당 운영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공사 기간에 기숙사 식당과 협의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선희 기자

## 김상림 원장, 제3대 제주대학교 병원장 연임

### 지역암센터 유치 등 제주도 의료 발전 기여



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김상림

림 현 원장을 재임용했으며 임용기간은 3년이다. 김 병원장은 지역암센터를 유치하고 보건복지부 중소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도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의학과(29회 졸업) △지방공사 강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83~87년) △김상림 정형외과 원장(87~98년)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진료부장(98~00년)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01~04년)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추진단 단장(02~04년) △제주대학교병원장(04~현) 강은정 기자 kangej@cheju.ac.kr

### 학점포기원서 접수

오는 27일까지

학점포기원서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들 중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을 6학점까지 포기 할 수 있다.

학점포기원서 서식은 홈페이지 아라광장 자료실에 게시돼 있으며 학점포기원서를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 제2회 아라여성축제 11일 개최

### 양성평등·여성권위 향상 위한 자리 마련

제2회 아라여성축제 '맑은날의 레인보우 로망스'가 오는 11일 한라터와 해내 곳곳에서 열린다.

맑은날 총여학생회(회장 강기욱 무역 3)가 주최하고 해남 여성상담소와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두 의과 교수)가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위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총여학생회 강기욱 회장은 "여성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도민들도 참여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과 함께는 남과여 강의', 개그맨 유세윤이 진행하는 '보랏빛 향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해남 여성상담소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행사와 평화남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평화남성 선언'을 마련한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성폭력 안하기 3원인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축제는 축제일정 정보와 차를 제공하는 '빨리 모여라 맑은날이 기다린다', 여자 축구대회 '주라기 월드컵', 팔씨름 대회, 점심제공, OX퀴즈 등의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무료로 체험하는 '초라하지 않은 나', 요리대회 '파송송 계란말이', '남궁

## 대학사랑 발전기금 기부 잇따라

### 수의학과 교수 일동 쾌척



지난 7월 13일 배우 고두심씨가 제주대아트를 건립기금으로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방학 중에 제주대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이 잇따라 전해졌다.

18명의 수의학과(학과장 이영재

교수) 교수들이 각 120만원씩을 모아 총 2160만원을 수의학과에 계속적인 발전과 학내의 부족한 시설 충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또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가 지난달 27일 발전기금으로 80만원을 전달했으며 배우 고두심씨가 '제주대아트를 건립기금'으로 연금출연료 2000만원을 기탁했고, '재미 워싱턴 지구 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이호석)에서도 제주대를 방문해 제주출신 15명이 모은 6600달러를 기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6일에는 벽곡(산방사 주지) 스님이 대학을 방문해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박종건 기자 park12@cheju.ac.kr

## 경상대 강당 타대에 비해 이용 제약 많아

### 사용신청 공문마저 접수 거부 당해

단과대학 축제 및 여러 행사가 열리는 9월, 행사주최자들은 학교 내 장소 섭외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및 강당은 대표적으로 법정대학 강당, 경상대학 강당, 공과대학 세미나실, 자연대학 세미나실, 의과대학 강당이 있다. 그러나 이 장소 섭외의 유무는 각각의 공간 지함에 의해 결정된다.

법정대학 강당과 의과대학 강당은 대역자가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중복되지 않을 경우 대역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이 찾는 법정대학 강당은 한 달 내내 학교 및 학생들의 행사 예약으로 일정이 가득차 있다. 예약이 중복돼 대역을 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경상대학 강당, 공과대학 세미나실 등으로 눈을 돌려 섭외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초 일어일문학과 학회회는 학과 학술제인 '파랑제'를 진행할 장소를 모색하던 중 경상대학 강당에 사용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닌 담당자의 근무시간 이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경상대학 강당은 교과의 장비가 설치돼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휴일 및 근무시간 이후 사용은 승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다.

김지훈(일어일문 3) 학회장은 "학과 행사로 인해 경상대학 강당 사용신청을 하러 갔다가 담당자가 근무시간 이후 사용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는 거의 대부분 주말이나 저녁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한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대학 관계자는

"강당 영사실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교과의 방송장비가 있는데 지난해 학생들이 기기를 함부로 만지는 바람에 다음날 행사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다"며 "교과의 장비 때문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와 함께 관리도 맡고 있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해 이러한 지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제약은 내·외부적으로 여러 좋은 행사와 공연의 질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두호(법학 4) 학생은 "제주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내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학교 측은 현재 시설을 이용과 관리 제도가 긍정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kangej@cheju.ac.kr

## 단과대학 축제 학내 곳곳에서 진행

### 홍향제 6일·PARNASSUS 7일

새 학기 개강을 맞아 학내 곳곳에서 단과대학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수학교육과 학술제 '시그마제'가 지난 1일 개최돼 단과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시그마제'는 예비교사로서 수학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탐구의 일종으로 게임을 수학교육에 적용한 '재미있는 수학기'이 진행됐다.

뒤이어 오는 6일 중어중문학과에서 주최하는 '홍향제'가 진행된다. 오늘부터 백두관 일대에서는 중국물품전시회가 시작된다. 오는 6~7일에는 전도 초·중·고등학교 중국어 말하기 대회와 중어중문과 학생들이 준비한 중문가성, 성우 따라잡기, 원어민극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어교육과가 주최하는 '제31회 PARNASSUS'는 오는 7~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축제의 첫째 날은 '영어마을'이 사범대학

일대에서 진행된다. '영어마을'은 공학, 우체국, 영화관 등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영어를 사용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둘째 날 오후 3시부터 법정대학 강당에서는 도전 골든벨, 영어 연극 'A midsummer night's dream'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6~8일 개최되는 자연과학대학 '연광제' 외에도 공과대학 '여름배 축구대회' 7~13일까지 열린다. 이어 일어일문학과 '파랑제' 13일, 의과대학 '의연제' 14~15일, 언론홍보학과 'Key frame'영상제 17일, 동아리연합회 '대동놀이' 17~18일, 법정대학 '청백제' 17~20일, 법학부 '모의 재판' 19일, 독일학과 'IFDK FEST' 19~20일, 경상대학 '시울제' 19~21일, 사범대학 '사육대동 마당제' 19~21일, 무역학과 '모의 상사중계' 20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제교류 대학 리포트

### 하와이대, Zahi 박사 '사막의 비밀들' 강의 가져

저명한 고고학자 Zahi Hawass(고대 이집트 최고 자문위원회) 박사가 지난 28일 하와이대학에서 '사막의 비밀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가졌다.

강의 내용은 Zahi Hawass 박사가 최근 조사한 기차고원 및 이집트 내의 발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Zahi Hawass 박사는 30년간

고대 이집트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며 작년에는 그의 작품 2005 CBS 다큐멘터리 '파라오 투탕카멘과 왕들의 공포'로 이집트인 최초 Emmy 상 수여자가 됐다.

현재 Zahi Hawass 박사는 베서널 지오그라피의 '진실을 위한 발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도호쿠대학, 아시아의학포럼 오는 10~11일 열려

도호쿠대학에서 '아시아 의학 포럼'이 오는 10~11일 이틀간 개최된다.

아시아 각국의 토플래스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40명 이상의 저명한 연구자를 초청하는 포럼은 연구자간의 교류

를 촉진하고 자연과학연구의 교육실적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 포럼은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갖는다.

### 캐롤대학, 영재교육소 설립

사회적 발전의 기호와 학구적인 잠재능력을 교육하는 '영재교육소'가 지난 7월 22일 캐롤 대학에 설립됐다.

영재교육소는 6학년부터 9학

년(13~16세)을 대상으로 학내의 실습실과 교실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상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의식과 지적인 발전 강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 김진호 정의와 교수 등 9명 보직 임용

### 임기 2년 동안 제주대 발전 이끌 것



지난 3일 총장실에서 보직 교수 임용장 수여식을 갖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찬(체육학부) 교수를 포함한 총 9명의 보직교수 임용장 수여식이 지난 3일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체육진흥센터소장으로 김성찬(체육)교수, 탐라문화연구소장 허남춘(국어국문)교수,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장 이진희(관광개발)교수, 평화연구소장 김진호(정치외교)교수,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장 김인중(생명공학)교수, 해양

환경연구소장 전유진(해양과학)교수, WISE프로그램제주지역센터 소장 방은숙(정보수학)교수, 교육과학연구소장 현승환(국어교육)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설연구실 습센터소장으로 소인섭(생물산업)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2년의 임기 동안 각 센터 및 연구소의 특성화를 통해 제주대와 제주도를 연구중심지로 이끌어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

## 제주대·대인과학기술대학

### 학술교류협정 체결



지난달 8일 대인과학기술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제주대가 지난달 8일 대인과학기술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교수·학자·학생 교류, 연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공동회의, 워크숍, 실습 등을 추진하는 일반협정과 그 부속협정서로 협력분야와 학술교류, 복수석 사하위 협정을 맺었다.

한편 지난 2005년 경상대학과 대인과학기술대학 여가학원이 정보, 교수 및 학생교환,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합동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학술교류를 맺은 바 있다.

## 시설보수, ONE STOP 서비스 실시

###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요청... 즉시 대처

"시설물 보수, 이제는 ONE-STOP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지난 7월부터 운영되는 ONE-STOP 서비스는 신속하게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수요자가 시설물 보수를 요청하면 즉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이전의 시설보수는 공문 작성 또는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했다. 그러나 ONE-STOP 서비스 시행은 모든 시설의 보수사항을 구내 전화 3003번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ONE-STOP 서비스가 학내 구성원의 호응을 얻는 가운데 사소한 부분까지 보수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학과방의 전풍기 수리, 전구

교체 등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해야 할 보수요청도 다수 접수되면서 시설과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업무가 늘었다.

이에 대해 시설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홍보해 학내구성원들이 보수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

조지원(사회학과 2)학생은 "예전에는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보수요청을 해야할지 몰랐다"며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보수요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시설과 관계자는 "아직은 시설보수 서비스가 시행 초기단계라 시설분야가 아닌 모든 불편사항이 신고되고 있다"며 "그러나 차츰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해한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cheju.ac.kr



# 대의원회 상반기 감사평가 공개

## 간이 영수증 과다 사용 · 금액 불일치 등 지적 사례 많아

사생결단 대의원회(의장 고창균 회계 4)가 지난달 1일 '2007학년도 상반기 감사평가' 결과를 자유롭게 시안을 통해 공개했다.

학생자치기구와 각 단과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여부, 회계장부 작성, 공약 실천 여부와 실행 계획, 사업에 관한 학우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평가에서는 간이 영수증 과다 사용, 회계 장부상의 오류, 결산서 오기, 금액 불일치 등 매년 지적되던 사항이 반복됐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처벌 규정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기준이

### 동아리연합회 회장 연락 두절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감사제도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 세칙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은 처벌 규정과 벌점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목구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감사시행과 선거시행 세칙, 학생회칙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새로운 세칙집을 단과대학마다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동아리 연합회 서인석(해양생선 4)회장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 당일에도 불참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 통장, 장부 등 여러 업무 자료를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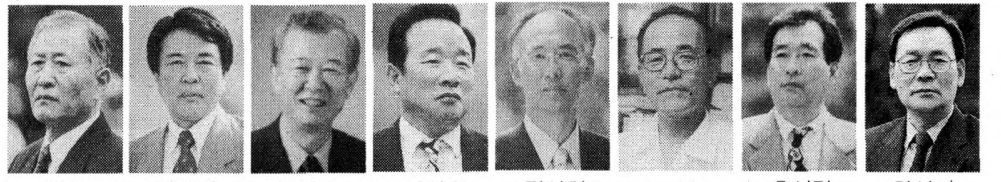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예산 정치 처벌을 내리고 제출하지 않은 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의원회 고창균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경우 특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학생총회, 총운영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될 문제이며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시행 세칙에 징계 내용이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점수제를 도입해 각 항목마다 일정 점수를 뒀 기준 점수를 넘을 때마다 예산 삭감, 정치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장부와 그 밖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9월 중 백두관 1층에 상반기 감사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선화 기자

## 곽이부·김수길 교수 등 8명 정년퇴임



정년퇴임식 행사가 지난달 30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년퇴임 교수는 곽이부(중어중문), 김수길(법학), 부만근(행정), 이현중(생물산업), 정상철(해양과학), 노섬(해양과학), 홍성락(물리), 한성빈(화학) 교수로 총 8명이다.

다음은 퇴임 교수 주요 약력이다.

▲곽이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 졸업(66) △성균관대 대학원 문학석사(82) △전남대 대학원 문학박사(94) △전임강사(84)

▲김수길 △제주대 법학과 졸업(66)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71) △전임강사(81)

▲부만근 △제주대 법학과 졸업(62)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석사(77) △건국대 대학원 행정학박사(93) △전임강사(78)

▲이현중 △서울대 축산학과 졸업(66) △고려대 대학원 농학석사(76) △일본 북해도대 대학원 농학박사(83) △전임강사(69)

▲정상철 △부산수산대 증식학과 졸업(66)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석사(83)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박사(88) △전임강사(85)

▲노섬 △부산수산대 증식학과 졸업(64)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석사(83)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박사(88) △전임강사(85)

▲홍성락 △경북대 물리학과 졸업(68) △경북대 대학원 물리학석사(70) △동국대 대학원 물리학박사(87) △전임강사(77)

▲한성빈 △부산대 화학과 졸업(61) △부경대 대학원 이화학석사(70) △동아대 대학원 이화학박사(80) △전임강사(81)

### 박태수 교수

한국상담학회 회장 선출



박태수(교육학과) 교수가 지난달 16~18일 열린 '2007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에서 제5대 한국상담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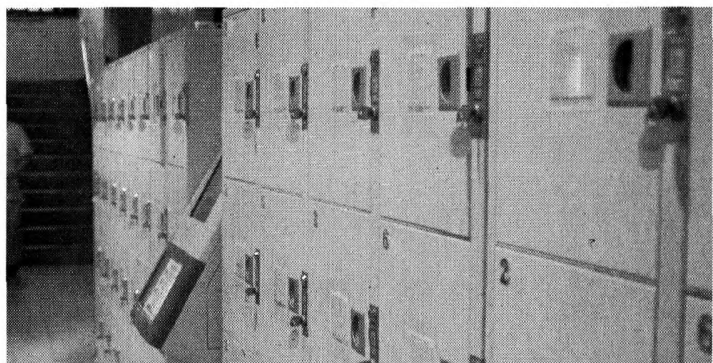
지난 2000년에 창립한 한국상담학회는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학회로 한국 상담의 발전, 학문적인 정체성의 확립, 국민의 정신건강과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이에 따라 박교수는 오는 2008년 8월부터 임기 2년 동안 한국상담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고선화 기자 ssun@cheju.ac.kr

## 도서관 전자사물함 이용 저조

### 시간 늘리는 방안 강구해야



중앙도서관 내 전자사물함을 설치했지만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중앙도서관(관장 고성효 회계학과 교수) 내 사물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전자사물함이 번거로운 사용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사물함 사용 시 학생증 바코드를 4시간마다 찍어 연장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손승환(통신컴퓨터공학부 1) 학생은 "전자사물함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자사물함 시간을 개인이 정하거나 늘리는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홍인준씨는 "사물함 개인독점을 막기 위해 사용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전자사물함에 익숙해지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전자 사물함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park12@cheju.ac.kr

### 일본 IT기업 초청 설명회

지난 21일 개최

'일본 IT기업 초청 설명회'가 지난달 21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가 주최하고 일본교토정보대학원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IT와 일본에 관심 있는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IT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주)DGIC, (주)네이커, (주)ekzm 등 총 9개 기업이 참가해 업무를 설명했다. 뒤이어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취업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면접을 실시했다.

하세가와 와타루(교토정보대학원) 이사장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에 IT산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부족한 IT산업 공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범(전기전자 3) 학생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듣지 못하는 일본IT기업 정보를 들 수 있어 좋았다"며 "그렇지만 설명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면접을 보면서 생각한 것과 다른 점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park12@cheju.ac.kr

### 인터뷰 제6대 총장 부만근 교수

## "퇴임 후에도 학교 발전 위해 최선"



- 퇴임 소감  
"섭섭함보다 아쉬움이 앞선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은 물론 연구활동, 학교 대표로서의 역할 등 제주대 발전을 위해 좀 더 힘쓰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재직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  
"제자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해 저서를 펴낸 것 등이 기억에 남는다. 21세기 첫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5건의 누리사업이 선정돼 학생들의 교육적 여건이 좋아진 것은 보람으로 여긴다. 또 국제교류회관, 경성대학 2호관, 의과대학 건물을 설립하고 제주

대학교 병원을 새로운 부지에 착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각고의 노력의 결과였다. 신축 결정이 쉽게 나지 않았지만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였다."

-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무언가를 해보기에 전에 실패를 먼저 생각해 뒷걸음질하기 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부딪쳐왔으면 한다. 또 재학 중에 미래를 위해 실력을 쌓아야겠다. 인생에서 오는 기회를 놓치지

인 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기회인 줄 알면서도 대비가 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능력이 없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준비하고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전공은 물론 외국어 실력도 중요하다. 글로벌 시대는 외국

어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자국어만 한다면 그만큼 생각과 기회가 좁아지는 것이다. 외국어 실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한다."

- 앞으로의 계획  
"퇴임을 제2의 인생을 위한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연구 활동을 하려 한다."

"제주대를 졸업하고 30년이 넘도록 교육자로서 재직했다. 그 중 4년은 학교의 대표자 역할도 했다. 나와 제주대의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고다. 평생 제주대 발전을 위한 관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퇴임 후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 이주의 행사

△의류학과 졸업작품전 CJNUFAC (패션쇼)  
일시: 9월 5일 오후 3시, 7시  
장소: 한라체육관  
주최: 의류학과 학생회

△ 체육진흥센터  
- 9월 6일~ 8일: 자연대학체육대회  
- 9월 9일: 생명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체육대회  
장소: 체육관

△ 제 2학기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기간: 9월 7일까지  
접수: 직업능력개발원

△ 제 42회 전도 종교생 문학백일장  
일시: 9월 7일 오후 2시  
장소: 경성대학 세미나실

△ 제1차 온-오프라인 영어강좌 개설강좌: 온-오프라인(튜터링) 영어강좌 강좌기간  
- 제1차: 2007. 10. 01~12. 31 (3개월)  
- 제2차: 2008. 01. 03~03. 31 (3개월)  
신청기간: 9월 7일까지  
장소: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홈페이지

페이지 (<http://oceannuri.cheju.ac.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홈페이지 게시란 참조.

△ 07년 2학기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안내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지원액: 등록금전액 (2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등기우편접수: 9월 8일까지  
- 방문접수: 9월 14일까지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T. 064-723-0703)

△ 행사유치 및 개최지원을 위한 제주컨벤션설명회  
일시: 9월 10일 오전 11시  
신청서 제출기간: 9월 4일까지  
장소: 국제교류회관 (세부장소 추후 공지)  
대상: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에 관심이 있는 교수  
기타: 참가신청서 접수처 (전화: 739-1803, 팩스: 739-1805)

△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신청접수기간: 9월 11일 (화)까지

신청접수: 사업단 사무실  
문의: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단 사무실 전화 2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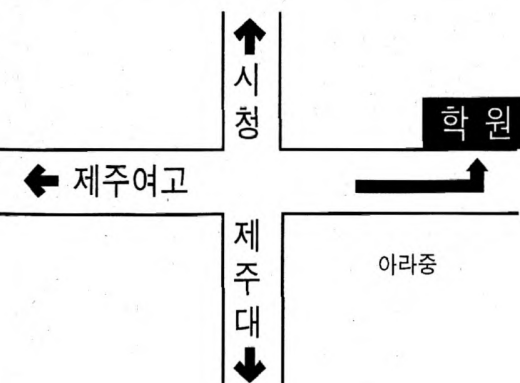
△ 정부보조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신청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신청기간: 9월 13일까지  
대출실행기간 (농협, 제주은행): 등록기간 중 대출약정 자격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포털사이트 참조

△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2007학년도 2학기 모의토의 시행  
신청방법: 사업단 홈페이지 (<http://oceannuri.cheju.ac.kr/>)-누리사업 참여학생 지원센터  
시행장소: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기타사항: '시행일시 및 접수기간은 사업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함.  
매회 응시자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시험이 취소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 운전면허

###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 (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제주대신문

### 55기수습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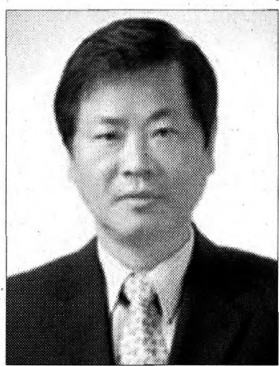
'제주대신문'은 새학기를 맞아 55기 수습기자를 찾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진 신입생이라면 도전해 보십시오.

△지원자격: 제주대학교 07학번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 10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 - 본관 직업능력개발원 3층 제주대신문사  
△시험일: 10월 5일(금) 오후 4시  
편집국내 교육실  
△전형: 한국어능력시험, 구술면접  
△문의: 제주대신문사 (754-2279, 010-9458-9838)  
△특전: B급 이상 장학혜택, 디지털편집 및 기자교육 등 다수



## ◆ 지구온난화 가속, 미래의 제주도는

## 곳곳서 이상기후 변화 감지 ... '온난화' 막자 열기 지구촌 후끈



최 흥 연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장

최근 기상이변에 관한 최대 이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이다. 금년 초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폭설과 폭한으로 50여명이 사망하고 10억불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인 이상난동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초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의심하였으며, 언론 및 방송에서는 '슈퍼태풍(Super Typhoon)'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겪게 될 피해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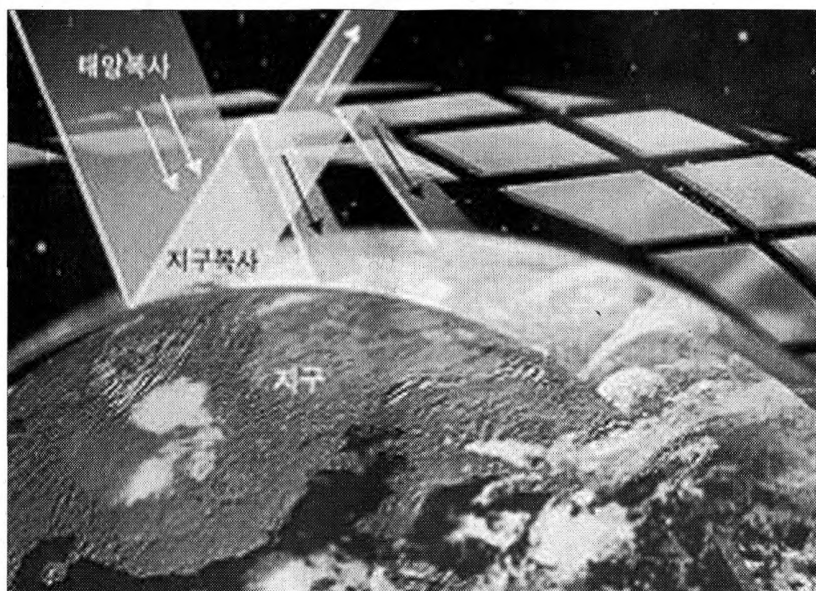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 너무 심해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콜라스 스텐(Nicholas Stern) 영국 경제고문이 작성한 스텐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섭씨 3℃ 더 올라가면 10~40억 명이 불 부족에, 5억명 이상의 인구가 기근에 허덕이게 된다. 5℃ 상승하면 히말라야

의 빙하가 소멸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작은 섬들과 뉴욕과 도쿄가 물에 잠기며, 홍수 피해와 수역 명의 영구 이재민 발생, 50% 이상의 생물 멸종 위기, 기근과 아사, 말라리아나 열병 같은 질병 문제가 잇따른다. 이를 방지하면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당시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각국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약 651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또 앞으로 200년 안에 세계 경제규모가 5~20%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하였다.

해결책으로 이 보고서는 세금 부과, 법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에 실패해 관련 비용이 늘어났지만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삶의 방식과 질을 포기하지 않고도 '푸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 36차 다보스 포럼(2007.1.24~28.)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핵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북극 빙하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 북대서양 허리케인 강도 증가로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내놓기도 하였다.

지구온난화에 관련한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채널인 IPCC는 2007년 2월, 기후변화에 대한 최근의 분석과 21세기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을 담은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1906~2005)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증가하였으며, 1850년 관측 이래 현재까지 가장 따뜻했던 12월 중 11회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의 속도와 이에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년 동안에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IPCC 제4차 보고서는 또한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 활동이 지속 된다면 21세기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은 계속적으로 빈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태풍과 허리케인은 해수온도 상승과 더불어 그 위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만약 산업환경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등 자연 친화적으로 바뀐다면 평균기온은 1.1℃, 해수면 상승은 18cm 정도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기상이변 온난화 탓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기상연구소(2004)에 의하면, 1904년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5℃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집중호우(일강수량 80mm 이상) 발생 빈도는 50년전 연평균 23.5일에서 36.7일로 1.7배 증가하였고, 봄철 황사 발생일수(서울 기준, 황사일수는 80년대 3.9일, 90년대 7.7일, 2000년 이후 12.8일)와 강도는 증가하였으며, 겨울철 대

설과 한파발생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 기온지수는 겨울철 폭한과 관련된 지수의 발생빈도는 줄어들고, 여름철 폭서와 관련된 지수는 증가하였다. 일최저기온 18℃이상의 냉방일은 약 20일/100년의 비율로 증가하였고, 일최고기온 18℃이하의 난방일은 약 15일/100년의 비율로 감소하였다.

또한 여름철 야간의 열대야 현상은 약 5일/100년의 비율로 미약하게 증가하였지만, 일최저기온 0℃미만의 서리일은 약 30일/100년의 비율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최고기온 0℃이하의 결빙일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15일/100년의 비율로 감소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자연계절의 변화도 탐지되었다. 일평균기온 5℃이하를 겨울, 20℃ 이상을 여름으로 정의하고 그 사이를 봄과 가을로 가정하면,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 약 한 달 정도 짧아졌으며, 여름과 봄은 그 기간이 길어졌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겨울이 짧아져서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것도 관측되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봄꽃의 개화가 빨라졌다는 연구결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제주도의 기후변화도 전국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1924년 관측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기온은 약 1.5℃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기온상승이 뚜렷하며 최고기온은 보다는 최저기온 상승이 두드러진다. 강수현상의 경우 최근 들어 강수일수는 적어지고 있으나 강수량도 및 연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수일수는 1930년대 141.3일에서 1990년

대 123.3일로 줄어들었으나, 강수량도는 1930년대 10.0mm/day에서 1990년대 11.8mm/day로 강해졌다. 이는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2000년 이후 일강수량 극값도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서리일·결빙일 등 폭한과 관련된 생활 기온지수는 감소하였고, 냉방일·열대야 등 폭서와 관련된 지수는 증가하였다. 자연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겨울은 1930년대 53일에서 1990년대 41일로 39일이나 짧아졌으며, 반면에 여름은 95일에서 125일로 30일 늘어났다.

## 발등의 불된 온난화 대책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상 현상 발생이 증가하고 또한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징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마련하고자 우리고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1일 환경부와 협약체결을 마쳤으며 TF(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연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경제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 ◆ 후학에게 보내는 글

## 특별기고

##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어야 한다



변시민  
전 제주대학 학장  
(1976.01.01~1979.12.31)

나는 일본 구제 고등학교(신제초급대학에 해당)의 한문시간에 일본이 처음으로 대학을 창립할 때, '동경제국대학교(東京帝國大學)'라 하였다가, 곧이어 천황을 모신 어전회의에서 "대학은 초등학교처럼 언행을 어떻게 하라고 교정(校正)하거나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곳"이므로 '대학교'의 '교'자를 빼고 '대학'이어야 한다고 하여 '동경제국대학'으로 개칭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8.15광복 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보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구 경성제국대학 정문에 '서울大學校'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때, 앞서 말한 고등학교 시절의 한문시간을 회상하면서, 당시는 반일감정이 강해서 옛 일본식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회풍조가 강했고 또한 당시는 미군정시대여서 한자를 잘 모르고 쓴 것으로 간주하면서, 대학에는 한문교수들이 많이 있으므로 곧 '서울대학'으로 개칭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서울대학에 11년 동안이나 재직하였으나, 당시는 종합대학이 몇 안 되었으므로 대학이란 말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았던 탓인지 모르나 나도 별로 그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대학에서 문교부 문화국장으로서 전출하여 근무할 때에는 대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었고, 그 후 제주대학 학장 시절은 대학이설과 학사문제 등으로 동분서주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말았다.

전두환 정권시절에 이르러서는 대학소요를 막기 위해서인지 대학에 대한 인식 쓰킨지 알 수 없으나 종전의 초급대학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들이 거의 모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대학교'란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로부터 나는 '대학교'란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잘못을 바로 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혀왔다. 지금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후학들을 위해서 여기에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려 한다.

## 대학교라는 말

우선 학교(學校)란 말을 생각해보자. 학교의 학(學)자는 '배울 학'으로서 글이나 언행을 배운다는 뜻이고, 교(校)자는 교정(校正, 校訂)이라 할 때의 '교'자와 같이,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바로 잡는다'는 뜻이 있다. 초·중등학교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글이나 언행을 배우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잘못된 글이나 언행을 고치고 바로잡아주는 곳이다. 그래서 '학교'라 한다.

그런데 대학(大學)은 큰 대(大)자에 배울 학(學)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큰 글, 즉 (최고학부로서) 심오한 학문을 배우는 곳이란 뜻으로, 초·중·고와 같이 글이나 언행을 가르치거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곳이 아니다. 즉 심오한 학문을 배우고 스스로 공부할 뿐이다.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들을 성숙한 인격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언행을 보고 있을 뿐,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만약 학생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 그 학생에게 그의 책임을 물을 뿐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언행이나 글을 바로 잡아주는 학교가 아니라, 학문만을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므로 대학에는 '교'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방 직후의 미군정시절에 가장 권위 있는 서울대학이 '서울대학교'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즉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구분을 생각해보자. 단과대학은 예컨대 농과대학이나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등에는 여러 복수의 학과가 있으나 동일 학문계열에 속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학문계열(학부)의 대학이란 뜻에서 단과대학이라 하고, 계열을 달리하는 학문계열이 몇 개 이상 있는 곳(우리나라 교육법에 3학부 이상이면) 종합대학이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구분은 6.3.3.4학년제 같은 그레이드의 구분이며,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구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설된 학문계열 수에 불과하고, 그레이드는 어

는 쪽이나 다같이 4년제이므로 종합과 단과를 명칭으로 구별할 필요 없이 다같이 '대학'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단지 내부적으로 종합과 단과의 구분 또는 총장과 학장과의 구분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기타, 심지어 북한 등의 한자권 지역에서는 종합대학을 '대학교'라 하지 않고 '대학'이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학교'란 말을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쓰고 있다. 즉 지금 일본에는 예컨대 수산대학교, 방위대학교, 항공보안대학교, 기상대학교, 조선대학교(조총련 경영), 기타 많은 '대학교'가 있으나, 이들 대학교는 4년제 대학수준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교육연한도 짧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대학수준의 대학을 전문학교, 단과대학, 초급대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용어사용법 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 같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종합대학을 '대학교'라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학관'이나 '초급대학'수준으로 보고 또한 우리나라 대학교총장을 전문학교 교장 정도로 오인한다.

## 대학이라는 곳

위와 같이 대학에는 가르치고 바로잡는 '교'자의 성격이 없으므로 대학은 질적으로 중급대학과는 전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는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대학이 생겨 교수 부족과 시설미비로 대학의 옛모습은 많이 퇴색하였지만, 대학의 기본은 변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학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의 대학시절을 참고 삼아 한 마디 하겠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은 최고 학부로서 인격자의 집단이다. 학생도 완성된 사회인으로서 학 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인답게 또한 신사 숙녀답게 행동하고 대학생 사이의 대인관계에서는 반드시 경어를 쓴다. 옛 중 고교 시절부터의

절친한 학우 사이에는 반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공적 석상이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는 절대로 반말을 쓰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항상 경어를 쓰고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하는 일도 없거니와 언성을 높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다. 교수도 학생에게 경어를 쓴다. 단, 오랫동안 지도하고 있는 제자에게는 반말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제자를 아랫사람으로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대한 친밀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중급대학과는 달리 학문을 연구 연마하는 곳이다. 옛 유럽의 대학(College)은 교수와 학생이 침식을 함께 하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와 같은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침식을 함께하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연구에 몰두하는 곳을 명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수를 중급대학교 교사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교수와 대학생은 한문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회회원 사이나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만났을 때, 보통 학문이야기로부터 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면 교수는 반드시 학생에게 "지금 무슨 공부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데서 대화가 시작된다.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하였을 때도 대학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므로 교수는 중급대학교 교사와는 달리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고, 도리어 학생에게 "학생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되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의 답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교수는 정답이 나오게끔 학생에게 질문을 계속 하되 교수가 답을 직접 가르쳐주는 일은 없다. 그 자리에서 학생의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학생에게 계속 연구할 과제로 남겨두게 된다.

이것이 대학이다.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할 때에도 자기의 생각을 먼저 말함

드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 교수본연의 자세는 연구

항상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교수와 대학생이다. 대학 은사는 나에게 "자네는 답배를 피우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으나, 나는 답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밤에 20분 정도 뜯을 산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루에 20분의 시간도 아끼면서 연구하는 것이 교수이다.

꼭꼭히 객관적으로 학리를 다루는 것이 교수이므로, 교수는 주관과 감정을 떠나서 만사를 꼼꼼히 또한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우선 강의시간은 학생과의 약속이면서 학생과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강의시작과 종료의 시각이 정확히 지켜져야 하고, 공부한 학생과 한 학생을 공정하게 가리는 체제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강의담당교수와 연구담당교수가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는 연구와 강의의 양쪽을 다 하여야 하는데, 그에 비해서 강의시간이 주9시간은 좀 많아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러나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은 교수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교수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라는 것이지, 놀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이점을 교수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 선진문헌 번역 중요

그리고 학문은 우선 선진학문을 이해 소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문헌의 번역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외국문헌 번역물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선진학문  
이해 위해 선진문헌  
보급 선행 돼야”



# 장기화된 삼영교통 파업 '일단락'

## '시민의 발' 담보한 임금싸움 안돼... 정상운행 최선을

삼영교통 노·사 분규가 지난 4일 타결됨에 따라 7개월간의 장기 파업이 막을 내렸다.

노·사측의 협상에서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였던 임금에 10%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되 무급임을 원칙으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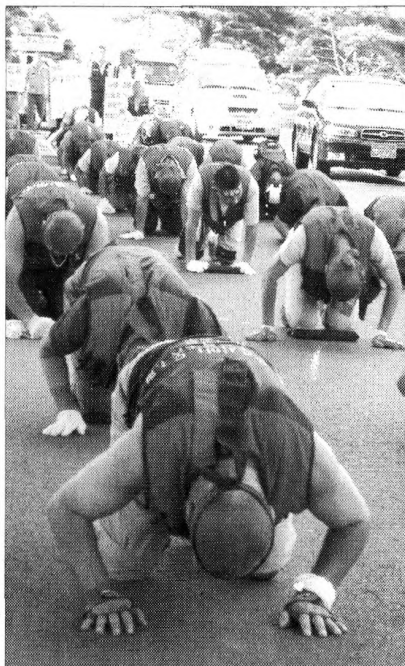
지난 7개월 동안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 됐던 파업이 일단락돼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버스 노동자 현실은

삼영교통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월부터 임금인상 및 생활임금보장과 배차시간표 조정,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기본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에 돌입해 왔다.

노조는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7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 대기시간과 주유시간 등을 제외한 12시간 35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았다. 평균월급은 14일 만근(28일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3480원을 받는 셈이다. 게다가 2004년까지 지급되던 식대가 2005년 1월부터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돼 식비보장은 물론 시급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무리한 배차시간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승객 안전을 위해 배차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사간의 갈등은 지난 5월 25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첫 조정이 시작됐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



지난달 27일 삼영교통 노조원들이 삼보일배 행진 등 파업을 시행하고 있다.



차이로 결렬 났었다. 그 후 4개월간의 협상 끝에 단체교섭 26개 조항 중 24개 조항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노조 사무실 설치와 전임자 배치는 합의되지 않았다.

노조측은 지난달 24일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지난달 27일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도로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구성원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했었다.

### 도민들 불편 '뒷전'

노조측이 지난 6월 6일부터 법정근로

시간 8시간을 준수하며 준법투쟁을 지켜왔으나 지난달 24일 전면파업선언을 하면서 배차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삼영교통 운행노선은 10개 노선(95대)에서 8개 노선(72대)으로 줄어든 상태다. 봉개에서 한라대 방향인 26번 버스와 외도에서 월평 방향인 36번 버스 노선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여객, 삼화여객, 극동여객 등 5개 시외버스업체에서 2개 노선을 대체해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차시간이 일부 변경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8월 기간에는 37, 92, 100번 등 버스가 평일운행에서 휴일 배차시간

으로 변경돼 시민들의 혼란을 더해줬다. 이러한 버스 운행은 이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하면서 더 큰 혼란을 안겨 줬다.

김민선(회계 2)학생은 "버스 파업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노·사측의 협상이 타결된 만큼 버스가 빠른 시일 내 정상운행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노·사측 합의 이뤄져

삼영교통은 7개월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에게도 피해가 커져 노조측과의 합의를 서둘렀다.

설립 이래 20여년간 노조가 없었던 삼영교통은 갑작스럽게 노조가 결속됨에 따라 그 대책도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최근 삼영교통 노·사측은 단체협약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가조인했다.

노조측은 지난 4일 사측에서 제안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11명의 조합원 중 59명이 참가한 가운데 41명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10명의 반대표와 8명의 기권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삼영교통은 5일 정오 노조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삼영교통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 혼란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며 "협상이 타결된 만큼 버스가 조만간 정상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psy@cheju.ac.kr

현장을 가다

'사랑의 학교'에서 펼쳐지는 장애인고용관리전문인력양성사업

장애인 대상 전문상담인력 키운다

지역 고용 창출 확대도 기대



지난 1일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주기 위한 그들. 장애인들이 생활이나 노동환경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모인 이들이 지난 1일 제주시 한화리조트에 모였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로서 지난달 4일부터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매주 교육을 받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동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교육 진행정도를 점검하고 관련 특강도 듣고 있다.

이날 역시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이 장애인 및 관련기업체 참석하에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남진열(행정학과)교수가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필요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한

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전문상담 지도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 고용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06년도 제주지역 장애인기업 원개발센터의 문명자박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이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정보통신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 콘텐츠 재편집 활용 등 다양성 확보

정보통신원(원장 이계명 전기전자공학 교수)이 내년 1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평가 부문에서 모두 적

합관정을 받았다.

정보통신원은 지난 2003년 교육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제주권역 대학e-러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제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제공해왔다.

또한 대학e-러닝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이번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다.

정보통신원은 전국 초·중·고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대학 홍보와 e-러닝의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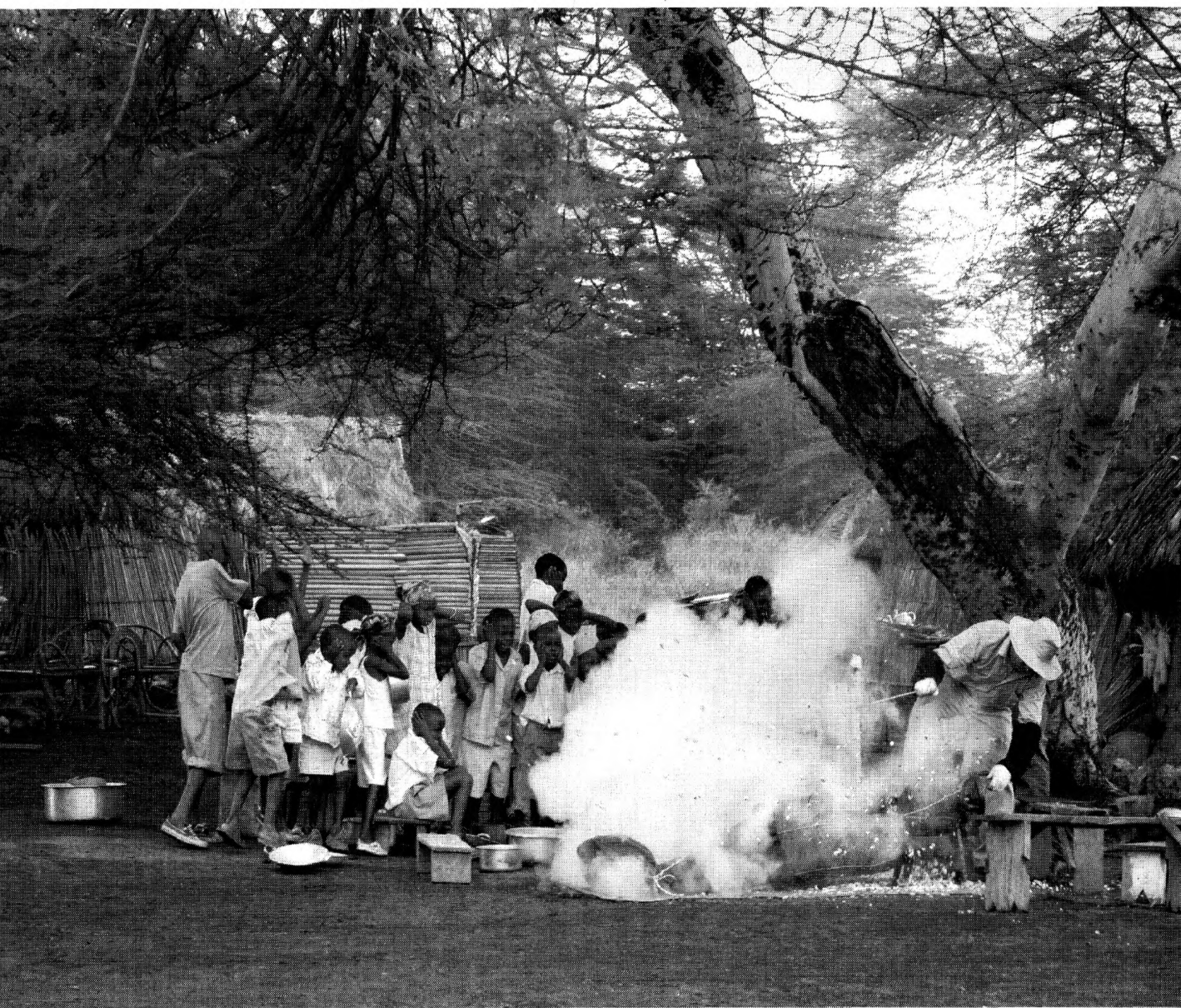
예정 강좌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재편집해 활용하고 타 연수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콘텐츠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약과 강좌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김우식 부총리 강연

### 오는 7일 국제교류회관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오는 7일 오전 11시 국제교류회관에서 '이공계 대확산회 특강'을 갖는다.

제주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이공계 위기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대로 마련된다.



## 작은 알곡으로 온 동네는 행복한 웃음이 채워집니다!

조용했던 탄자니아 만아라 마을,  
오늘은 낯선 땅에서 온 뽕튀기기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릇 가득 옥수수를 가져온 아이도, 한 줌도 못 가져온 아이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평 소리가 나고 알곡을 못 가져온 아이의 빈 그릇에도 옥수수가 가득 담겨집니다.  
온 동네 아이들의 그릇에 하얀 행복이 골고루 나눠 담겨진 이 순간,  
모두의 얼굴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미소가 담겨집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posco  
소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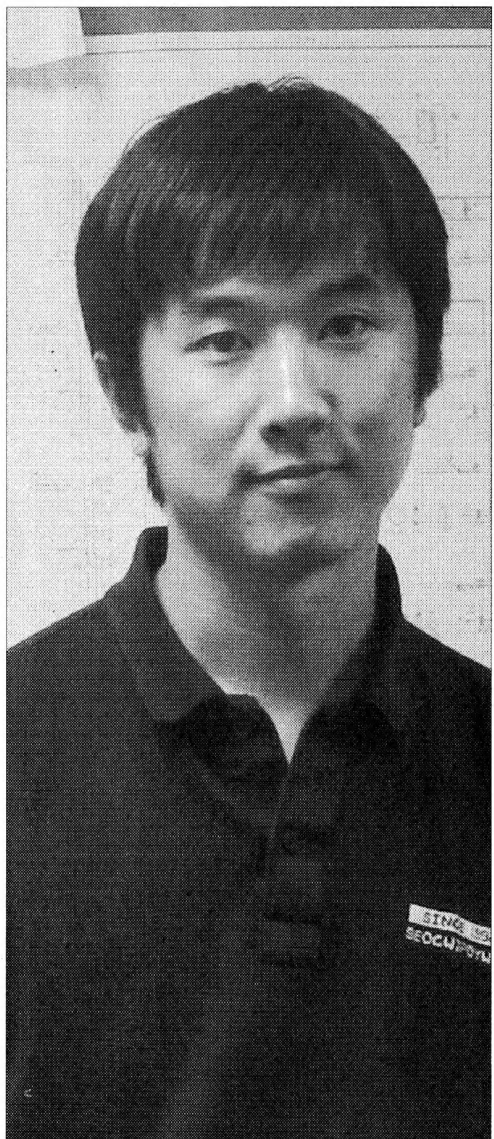




## ◆ 대학생 인턴십 체험기

## “도전 하는 이가 아름답다”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경험쌓기 ... 취업시 많은 도움 돼



김형남(전기공학 3) 학생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말이다. 아르바이트가 사회경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직접 실무를 배우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론을 배워서 아는 것만으로는 더욱 안 되고 이를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많은 기업에서 인턴십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평소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서 미리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어학능력과 실무경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인턴십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경험해본다는 것은 어떠한 수업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나지만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는가.

민약 인턴십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이들의 좌충우돌 인턴체험기를 주목하라.

## “더 큰 꿈이 생겨요”

어학연수와 인턴십의 기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해외인턴십프로그램에 참가한 김형남(기계공학 3) 학생. 캐나다에서 했던 해외인턴십은 영어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해외인턴십에 참가했던 선배의 말과 수업시간에 인턴십에 대해서 들은 뒤 차근차근 준비하게 된 해외인턴십. 그는 “영어 등 항상 준비해두면 기회

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꾸준히 준비하다보니 해외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평소 공부하던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의 인턴십.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업무 중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했다. 실무에서 실수할 수 없는 법.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해 실수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점점 적응해가면서 영어실력도 늘고 일도 잘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도 직업을 구하는데 두려움도 줄어들었어요. 더 넓은 곳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서 그런지 꿈도 더 커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인턴프로그램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해외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실무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며 “토익도 중요하지만 가서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화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하는 인턴십이기에 선택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며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인턴십, 강력추천해요”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여름방학 산학협력 인턴 실습프로그램에 참가한 송혜진(영어영문 4) 학생은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해 정신이 없다.

취업이 코앞에 다가온 그에게 ‘인턴십실습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서류심사를 거치고 2번의 면접을 통해 드디어 실습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인턴십의 기회를 잡기 위해 여러 포털사이트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베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를 했다.

그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배웠다”며 “자기소개서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업무는 이슈를 찾아 네티즌이 찾아볼 수 있게 검색키워드를 올리는 등 네티즌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이슈를 전달하는 것이다. 인턴이라고 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건 아니다. 주어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턴이지만 실무경험을 쌓는 일하기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사회경험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직장생활을 해보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이번 인턴십을 통해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까지 정한 그는 학생들에게 인턴십프로그램을 추천했다.

그는 “인턴십제도가 많아지면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다”며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하고 준비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인턴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에 한번쯤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며 “면접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도전자체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lkj@ch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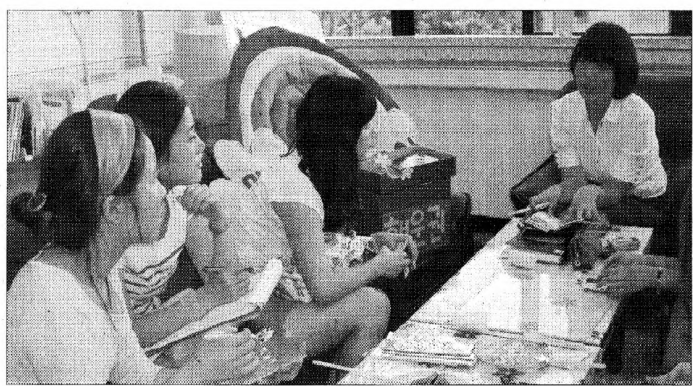
송혜진(영어영문 4) 학생

현장 속으로 GO GO

총여학생회

## 두근두근, 쿵덕쿵덕

‘제2회 아라여성축제’ 11일 준비 이상무!



캠퍼스의 9월 무지개 빛 사랑이아기가 가득하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2회 아라 여성축제’ 맑은날의 레인보우로망스’가 학생들에게 설렘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들의 가슴을 쿵덕쿵덕 설레게 하는 이들은 총여학생회 임원들. 지난 30일 축제의 막바지 준비로 하루하루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찾았다.

늦은 6시 학생회실을 찾은 시간에는 이미 축제의 행사진행에 대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이 날의 회의 안건은 기획한 이벤트의 준비 상황, 행사소품 준비 등이다.

그들은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축제에서 진행될 행사 하나하나를 점검하기에 하루가 짧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오랫동안 준비해온 축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준비사항이 마무리 된 상태예요”

이들은 여성축제를 준비하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다. 축제준비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6월 20일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방학 내내 12

명의 학생들이 지속적인 회의를 가졌다. 그들에게 축제 준비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행사 하나하나를 계획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켜는 듯한 무더위였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학 내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그들은 남녀학우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축제에는 ‘파송송 계란타’ 요리경연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맑은날’이라는 주제에 맞게 요리 솜씨를 뽐내는 코너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감각으로 밀줄을 그어 몇 cm인지 맞추는 코너 외에도 △남공연과 함께하는 남과 여 강의 △팔씨름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축제에는 이전 여성축제와 차별성을 두며 ‘양성평등 캠페인’에 대한 무대행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강기욱 총여학생회장은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며 “축제가 끝나기 전까지 홍보를 열심히 해 준비된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jieun@cheju.ac.kr

문화  
지대

현민식 서예문인화총연합회 대표회장

## “젊은이들이여! 자신의 미래의 모습 살펴보길”



나고 자라 제주의 돌을 닮아간 사람. 우직한 신념으로 한평생 서예의 길을 걸은 라식 현민식(75) 선생을 만났다.

그에게 있어 서예의 길은 ‘팔자 소관’이다. 그러나 타고난 운수로 인해 어릴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길 이 아니라 세상에 그를 있게 하는 커다란 힘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고회를 넘긴 나이까지

탐 라의 돌, 라식(羅石)에게 투박한 멋과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

제주에서 인생 전반을 서예를 위해 살아올 수 있었다. 한평생 서예의 길을 걸은 그지만 처음부터 서예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 글을 쓰곤 했으나 그에게 서예는 취미와 특기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에게 인생의 어느 날 문득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는 길을 걷다 잠시 멈추고 무심코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돌아보게 됐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내가 걸어온 길조차 나의 흔적이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걷는다 해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많은 고민을 했고 마침내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서예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그의 나이 20대 후반이었다. 그는 부산으로 올라가 사군자를 배우고 글씨의 모범이 되는 법칙을 사서 공부를 했다.

“한평생 서예를 위해 살아왔지만 아직도 서예사로서 갈 길이 멀게 느껴져. 모든 학문이 그렇듯 서예 역시 배우면 배울수록 모자람을 느끼거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면 언젠가는 정말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

얼마 전 그에게 서예가가 아닌 수필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겼다. 최근 대한문화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하게 된 것이다. 작년부터 한 언론사의 부탁으로 간간히 신문에 글을 쓰기는 했

으나 문단 등단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후배의 추천으로 등단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기에 서예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지. 수필가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됐지만 여태껏 서예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예가로서의 내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생들에게 젊었을 적부터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길 강조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미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jieun@cheju.ac.kr

문화  
화  
단  
신

제26회 ‘아라음악제’ 오는 6일



올해 26회를 맞은 ‘아라음악제’가 오는 6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총 14개의 곡을 연주하며 2시간동안 진행된다. 또 피아노 독주부터 현악기 협연 등이 준비돼 다양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임지향 &amp; 박순방 The Piano Duo Concert

오는 10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피아노학회 초청 임지향 & 박순방 The Piano Duo Concert’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박순방(음악학과) 교수와 성신여대 기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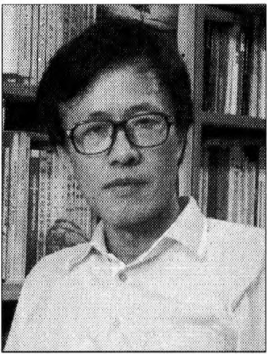
임지향 교수의 피아노 2중주 연주로 진행된다.

‘바흐의 오르간 환상곡과 푸가 BWV. 542’ 등 총 4곡이 연주되며 마지막 곡에서 음악학과 장진경 학우와 성신여대 대학원 강스텔라가 찬조한다.



■ 무문유설 ■

## 미국 단상(斷想)



김현돈 철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오스틴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1년간의 방문교수 임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텍사스 주는 한반도의 5배가 넘는 면적으로 알래스카 다음으로 큰 주이다. '텍사스엔 모든 것이 크다'는 말이 있다. '엑스 라지'보다 큰 사이즈를 '텍사스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건조한 아열대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의 변화가 있으나 겨울은 짧고 여름이 길다. 여름철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육박하지만 습도가 낮아 상대적인 체감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의 아성이며 부시가의 본고장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농후한 곳이다. 지역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마저도 미국의 성인 남성에게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공공연히 멘트를 할 정도다. 그런데 텍사스의 주도이자 대학 도시인 오스틴은 여느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도시였다.

내가 살던 그레이스톤가의 신호등 없는 네거리 정지 신호판 'STOP' 글씨 아래 여백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부시(BUSH)'란 글씨를 써 놓았는데, 일 년이 다가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철교 위나 도로변 곳곳에서 목격하는 반전 구호의 그라피티(낙서화)도 눈에 익숙

하다. 대학엔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생 서클이 있고, 마르크시즘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리기도 한다. 몬테나주에서 발원해 와이오밍, 유타, 콜로라도 등 여러 주를 거쳐 남으로 남으로 유장한 흐름을 이어온 콜로라도 강이 넓은 강폭으로 오스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딱딱 나무 숲으로 우거진 아름다운 강변은 사물이 머다 않고 내가 애용하던 산책로였다. 한 시간 반 남짓 걸리는 이 강변로를 거닐며 고즈넉한 사색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던 맛은 잊을 수 없다.

개를 데리고 유유자적 카투, 카약의 노를 저으며 한가로움을 즐기던 택시들, 강변 길코 파크의 라이브 무대, 풍성한 볼거리와 현란한 전광쇼가 인상적이던 연말 할리데이 축제에 오스틴의 명물이다. 동북부와 서부, 남부 곳곳을 여행하면서 내가 경험한 미국은 여러모로 이중적인 나라였다. 자유와 부자유, 합리와 비합리가 공존하고 있었

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자유의 천국이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나라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류가 동네 가게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늘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그 옛날 서부개척 시대가 잉태한 원죄의 산물일 것이다. 먼저 총을 뽑아 상대를 거꾸러뜨려야 살아남고, 살아남은 서부의 총잡이들이 결국 정의의 사도가 되어 오늘날의 미국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는가.

그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평화는 원주민을 힘으로 제압하고 달성된 거짓된 것이기에 집단적인 피해망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유치해 무장으로 평화를 달성하려는 논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진정한 평화는 물리적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사설

### 우리대학이 제주의 국제화를 이끌어야 한다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수험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정된 인적자원과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입생 유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구책을 찾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중인 학부지원 핵심사업인 누리사업에서 6개의 사업단을 유치했고, 대학원 지원사업인 BK21에서 4개의 사업단을 유치했다.

타 지역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밀리지 않는 교육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그 외 IT분야의 대학IT연구센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크고 작은 사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많은 사업을 유치했다고 대학의 경쟁력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이제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남다른 전략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대학의 국제화가 우리대학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 제주도는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했다.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제주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고도의 지방자치 지역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체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전부터 주장했던 용어가 '국제자유도시'였다. 제주도의 국제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여 거의 20년 전부터 전국 최초로 국제화를 외쳤으며,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됐다. 이처럼

국제화를 주창한 배경에는 제주도는 국제화를 하지 않으면 잘 살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에 국제화는 당연히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많은 국제화된 인재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제화된 인재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양, 관광, 정보, 금융, 법률,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다각도로 움직일 때 제주의 산업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만일 제주도가 국제화에 다소 뒤처진다면, 부분적으로 제주대의 책임이다.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인재를 제주대 출신이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러한 인재들이 제주도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제주대가 키워낸 인재가 국제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그것은 제주대가 국제화 교육에 상당 부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제화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제주의 숙명이라고 본다. 세계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를 넘어 FTA(Free Trade Agreement)체제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

들만이 잘 살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당장 한미 FTA체제로 인해 갈수록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게 돼 있다. 국제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 중심에 제주대가 있다.

이제는 중국, 일본, 동남아를 넘어 유럽, 북미 대륙까지 손을 뻗어 대한민국의 제주대가 아닌 세계속의 제주대가 되기 위한 힘찬 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제주도를 떠나는 우수한 인재를 붙잡고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돌하르방

## 공휴족을 아시나요

2007 대학가에 '공휴족'이 뜨고 있다. 취업난이 대두되면서 쉬는 것을 두려워해 학점관리와 어학공부는 기본이요, 각종 동아리·스터디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는 그들을 일컬어 공휴족이라고 한다.

대학가에 공휴족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높다높은 취업의 벽이 실감난다. 공부하면서 언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대학생들을 보며 '취업이 뭐 길래 몸이 서너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하는 일이 많냐'고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취업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다양한 활동은 필요하다.

공휴족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한 우물만 파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듯싶다. 이제 어느 하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토익은 850점, 학점은 최소한 B+는 넘어야 하기에 밤새도록 코피 터지게 책과 씨름하는 일은 공휴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실력과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공모전은 물론 각종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대학시절 열정을 불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국토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바쁘다.

1분, 1초를 쪼개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이들을 회사에서도 원하는 인재로 높이 평가한다. 아무리 높은 토익점수와 화려한 학점으로 이력서를 채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요즘 회사에서는 높은 점수보다는 대학생다운 다양한 경험들을 중시한다.

이러한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지금 남들과 똑같은 뻔한 내용이 아닌 자신만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로 채운다면 어떤 이력서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서 수북하게 쌓인 책과 씨름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력서에 화려한 토익점수와 학점을 자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몇 시간동안 공부했음'이라고 적을 것인가.

이제 수북하게 쌓인 책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수북하게 쌓아야 할 것이다. 요즘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높은 학력과 점수를 가진 자가 아닌 이 시대의 진정한 공휴족이 아닐까.

이정주 문화부장

### 독자기고 국토순례단 국토지기

####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



오민영 언론홍보 3

2007년 여름은 뜻깊다.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 중 하나를 이뤘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국토를 튼튼한 두발로 걸었다. 한두 살 먹을수록 열 정도 배장도 사그라지던 자신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친구의 소중한도 새삼스레 깨달았고 소중한 인연도 얻었다는 것이다.

해남 땅 끝 마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8.2km, 27박 28일 일정이다. 행진 출발 날 짜가 다가오자 설렘 반 두려움 반 마음이 복잡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이기고 의지를 다지고 이렇게 '나'만 생각했다. 미처 남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행진 첫 날부터 느낀 것은 이 세상은 역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힘들 때면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고 '힘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던 힘도 나게 했다. 모두가 지칠 때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흥이 절로 났다.

우리 국토를 걷는 한달 동안 22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 한 것 같다. 삼파로 뿔래도 하고, 웃은 배낭에 걸려 탈리고, 사위는 학교 수돗가에서 코뿔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가차역에서는 누워서 쉬고, 걸으면서 졸아도 보았다.

정말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한달 동안 최하위의 삶에서 한 단계 높은 삶을 살았다. 이제 언제 어느 곳을 가든 두려움은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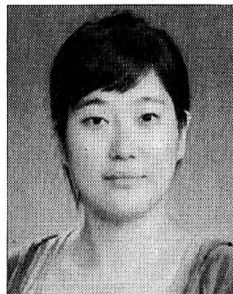
우리가 매일 걷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루는 팀을 나눠서 체육대회도 하고, 하루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은 찢겨 드리우고, 이야기도 나누고 시설 청소도 도왔다. 강원도에서는 피망 밭에 가서 농촌봉사활동도 했다. 봉사활동을 끝내고 피망을 안주삼아 막걸리도 마셨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뿌듯했다.

'간절히 원하던 결국엔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맞다. 마지막엔 다같이 어깨동무하고 통일전망대를 향해 힘차게 걸었고 모자를 하늘을 향해 내던졌다. 행진의 마지막은 시원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항상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내 꿈을 향한 질주를 시작하겠다. '도전하라 처음인 것처럼! 행진하라 끝을 모르는 것처럼!' (국토지기 슬로건)

### 독자기고 2007 테마별 세계여행

#### 건축의 시각을 넓혀준 소중한 경험



양영은 건축 4

지금 유럽 전역에서는 세계적인 비엔날레 축제인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쿠멘타 등이 개최되고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2007 테마별 세계여행의 계기로 접하기 힘든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의 문화, 예술, 건축 등의 흐름을 파악하고 건축공부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행에 임했다.

로테르담 국제건축 비엔날레는 도시의 모습과 건축가, 도시계획가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현대 건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세계각지의 학생과 건축가들에 의해서 소위된 도시에 대한 재생방안, 도시의 과거와 현재모습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등 도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것은 이번 학기 과목중 하나인 건축 설계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네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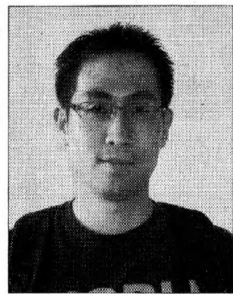
란드의 현대 건축들을 답사하며 얻은 자료와 함께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용해 이번 학기 설계과목 주제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축제인 카셀 도쿠멘타는 5년에 한번 개최되며 가장 앞선 실험과 참예한 논쟁, 과감한 도전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선도해온 100일 간의 축제로 알려져 있다.

직접 가보니 그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유럽 중심적인 행사이고, 평면작품보다 비디오와 설치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물해는 미술의 인문학적, 윤리적, 교육적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축을 하는 우리에게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키울 수 있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홀수 해마다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현대미술 비엔날레로 건축 관련 비엔날레도 열리지만 시시상 맞지 않아 미술관련 비엔날레를 참여하였지만 이것 또한 카셀과 마찬가지로 예술을 통해 건축을 보는 새로운 눈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예술 축제를 통해 현대 예술의 흐름에서 건축이라는 것의 역할,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전공과목을 수강하며 배움에 따라 각 주제에 맞는 새로운 심도 깊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김승범 정치외교 4

요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방송을 하기 중 못지않게 바쁘게 지낸다. 모두들 졸업 후 진로를 위해 유익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추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4학년이 됐고 내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나로서도 올 여름방학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여름이었다.

본 학생세미나의 참가는 정치의 교화를 공부하고 국제기구 진출이 꿈인 나로서는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해외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고 영어를 연습할 수 있었고 세미나 주제가 평화와 기후변화로서 전공 관련 학습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

INU(International Network of Universities)는 싱가포르의 한 사업가가 설립하여 호주 멜번의 라트로

브대학(La Trobe University)에 사무국을 두고 세계의 대학들과 교류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총 9개국(헝가리,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영국, 캐나다, 한국)에 15개의 회원대학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희대학교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의 공식명칭은 'INU Student Seminar on Global Citizenship-Peace'이며, 8월 4일부터 7박8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시민의식과 평화관계는 곧 개개인이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었다. 특히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세미나 중심 주제로 놓고 열린 강의와 활동이 이루어졌다.

첫 2일간은 히로시마평화공원 일원에서 진행되었는데, 8월 6은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날로써 평화공원 내에서 추모행사가 거행되어 참석하였다. 전날 일본인 원폭 생존자의 강의를 있었는데 70세가 되어 보이는 그가 들려주는 생생한 경험담은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묻기 이전에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후 모든 일정들은 히로시마대학 내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내용은

은 회원대학에서 오신 교수님들의 강의와 참가학생들의 그룹워크숍, 토론회, 강연회, 그리고 모의유엔회의가 그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일본차문화체험, 히로시마 전시장과 유엔 산하기구인 UNITAR에서 근무하는 교수님의 강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2년 전 제주에도 겨울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제주에 살면서 눈을 맘껏 보게 되니 어린이들이 마냥 좋았다. 하지만 이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며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화석에너지사용, 대량소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험이 불과 100년 안에 큰 재앙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시작한 것은 자전거 타기였다. 그리고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는 소비하지 않는 등 우리가 지금 우리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동참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직접 쓴 글을 여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활동 체험기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조성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sun@cheju.ac.kr, 홈페이지 http://cnpupress.cheju.ac.kr



오찬익 재외제주도민협회 회장

##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나의 고향 나의 부모님

제주사람이기에 고향 제주를 사랑하고 일본 땅에서 재일제주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오찬익(61) 회장. 재일제주인 2세인 그는 동경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고향 제주를 향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오사카에 있는 할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종손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면서 일본에 머물렀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고향인 제주를

그리워했고 그에게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고향인 '제주도 표선면'을 한문으로 적어보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지 않았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의 주변사람들 말로는 그가 한국인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름도 '토미야마'라는 일본이름을 사용했다. 예전에 부산을 토미야마라고 불렀던 점에 착안하여,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토미야마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대부분의 재일제주인들이 하는 밀바닥 일들을 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게 서툴러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제주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전형적인 제주 사람이어서 장사에는 소질이 없어서 어머니가 많이 고생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신적으로 존경할만한 분들이에요.”

### 야구로 채운 학창시절

남들보다 1년 일찍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 1946년생인 그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945년생인 줄 알고 있었다.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게 됐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했던 그는 공부 대신 평소 좋아하던 야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갔다. 그의 고등학교는 오랜 야구부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였다.

“야구를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한 살 어려웠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4번 타자를 하기도 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택하게 된 야구가 어느새 그의 인생에 전부가 돼 있었다. 그러던 중 다리를 다쳐 고시엔이라는 일본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출전할 수가 없었다. 당시 달릴 수는 있었지만 타자는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상 때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가 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기도 했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리부상으로 입원해 있던 그는 야구로 대학에 진학하자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집안 형편상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이는 선배의 추천으로 대소하라는 회사의 야구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성격이 좋아 한국원정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당시 크라운맥주, 연세대, 농협 등과 시합을 했는데 총 14경기 중 13경기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그 당시 상대팀 선수 중 지금 감독을 거쳐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김응룡씨도 있었어요. 경기 덕분에 한국에 처음 가게 됐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왔어요.”

###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는 다리부상이 허리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전부였던 야구를 그만 두게 됐다. 그 역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야구를 할 수가 없었다.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진구(神宮)야구장에서의 경기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때 처음으로 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한테 진 것 같다는 생각에 큰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좌절감에 방황을 하던 그는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1년 동안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4~50대였고, 농사마저 짓다 포기하고 막판에 내몰린 사람들이었다. 주변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쁜 일을 하고 도망 온 사람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그 1년이란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하고 고모부 친구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 회사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였을까. 고모부의 친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오찬익’이라는 사람만 보고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면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그의 집안 형편은 어려웠고 그 역시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 그에게 고모부의 친구는 그의 끈기와 성실성을 믿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됐다.

###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해

부동산 관련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회였다.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믿고 도와 줄 이가 몇이나 된단 말인가. 고모부 친구와의 만남은 그에게 좋은 기회였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당시 부모님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일을 열심히 했다. 어렸을 때부터 손해 보는 걸 싫어했던 그는 일을 시작할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언제나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기회를 못 잡은 사람은 ‘운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 있는 그대로를 지켜주길

제주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는 제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다. 제주의 자연은 제주사람들의 재산이므로 발전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산업을 증시할지 자연을 증시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lkj@cheju.ac.kr

### 관동제주도민협회

## 현지에서 ‘내고향 사랑운동’ 확산에 앞장 제주·일본 가교역할 톡톡

재일교포들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일본의 관동지역. 일본 어느 곳이든 재일교포들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관동지역은 유난히 그들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 곳에는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던 당시 많은 재일교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아픈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도쿄의 우에노 공원 서쪽에 위치해 있는 분쿄구 유시 지역에 찾아가면 낯선 일본 땅에서 재일제주인들을 만날 수 있다.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기 위해 이 골목 저 골목을 한참이나 헤맨 후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를 찾을 수 있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작은 제주를 만난 듯 관동제주도민협회에는 제주가 있었다. 협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창립당시 때부터 활동했던 사진들이 진열 돼 있다. 향토학교로 제주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을 통해 제주의 변화 역사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관동제주도민협회는 1961년 ‘재일본제주개발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약 45년 동안 재일제주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재일제주인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어려웠던 당시

감귤묘목을 보내거나 전기, 수도시설 등 고향 제주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관동제주도민협회는 ‘제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체수익을 창출해 협회를 운영



도쿄 분쿄구 유시에 위치해 있는 관동제주도민협회 사무실

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수입으로 협회를 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을 제주로 보내 고향 제주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부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또 산년회, 성인식, 친목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동지역에 있는 재일제주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2차례 회지인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뉴스’를 발간해 관동제주도민협회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의 활동이 적어 예전만큼 활성화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오인돈 관동제주도민협회 청년회 회장은 “앞으로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제주에 대해 알려주고 관동제주도민협회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려한 속에 재일교포들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 도쿄. 그 속에, 작은 제주 관동제주도민협회가 자리잡아있고 오늘도 제주인들을 위한 하루가 시작된다.

이경주 기자 lkj@cheju.ac.kr

###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 도서기금 전달

1971년부터 36년째 제주대 사랑 이어져



지난달 13일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가 도서기금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회장 박태강)가 36년째 제주대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가 제주대를 방문해 도서기금 32만5000원을 기부했다. 송성대 대학원장은 도서기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박태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태강 회장은 “우리들의 뿌리인 제주도에 대한 관심으로 매년 도서 기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도서기금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도서기금 기증식에서 그 동안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재일제주인센터 건립과 국제언어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는 1971년부터 ‘책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도서를 구입해 기증해 오다 지난 1994년부터 도서기금으로 기부해 도서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